

추석 황금연휴, 특별한 여행지는 역시 순천

국가정원·순천만습지·낙안읍성에서 도심 공연까지, 즐길 거리 가득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낙안읍성 같은 대표 관광지는 물론, 오천그린광장과 드라마촬영장 등 도심 공간까지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자연과 전통, 도심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번 연휴는 귀성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자연 속 힐링, 순천만과 남파랑길
순천만과 남파랑길에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 펼쳐진다. '갯벌 단풍여행 in 남파랑길'은 와은소공원에서 칠면조 군락지를 지나 코스모스, 갯벌 버스킹과 비즈식물 만들기, 일몰 감상 등이 더해져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10월 4일에는 '순천만 씨워킹'이 열린다. 장산마을에서 순천만습지까지 이어지는 하프코스를 걸으며 바다와 갯벌, 갈대밭을 따라 순천만의 생태적 매력을 체험

할 수 있다. ◇ 국가정원·습지·낙안읍성, 전통과 생태가 공존하는 무대
순천만국가정원은 황금연휴 동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 무대로 변한다.

낙우송길 데크무대에서는 전통기와악과 현대 공연이 이어지고, 드림호 선착장에서는 대형 율동놀이와 제기차기 같은 가족 대항전이 열린다. 어린이동물원에서는 사육사 체험과 생태설명회가 진행돼 아이들에게 자연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봉화언덕에는 대형 보름달 포토존이 설치돼 세대가 함께 소원을 적어 달며 명절의 의미를 나눈다.

순천만습지는 세계적 생태 보고다운 소원그림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보름달 소원 결기, 종이비행기 소원 날리기, 미래로 보내는 메시지 쓰기 같은 참여형 이벤트가 명절의 흥겨움을 더한다. 생태체험선 '무진탐험'과 맨발걷기길 '순천만 힐링로드'는 습지와 직접 교감하며 치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의 장으로 운영된다. 읍성에서는 투호·제기차기·윷놀이 같은 전통놀이와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고즈넉한 성곽과 전통마을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전통의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함께 전한다.

◇ 오천그린광장과 드라마촬영장, 도심 속 축제
오천에서도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문화예술 빅쇼(Big Show)'가 열린다. 아고라 순천, 에니음악회, 추억 속 만화여행 등 테마공연과 함께 양지은·김수찬·소찬휘·자두·원슈타인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전통놀이, LED 쥐불놀이, 대형 윷마블, 보름달 포토존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도심에서도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문화예술 빅쇼(Big Show)'가 열린다. 아고라 순천, 에니음악회, 추억 속 만화여행 등 테마공연과 함께 양지은·김수찬·소찬휘·자두·원슈타인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전통놀이, LED 쥐불놀이, 대형 윷마블, 보름달 포토존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 13억 투입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구매 비용 80% 지원,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조업 환경 마련

군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품목은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과 허리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이며, 출입항 신고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로 지원된다. 승선 인원 1명이면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 사업에는 총 13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8천여 척의 어선이며, 9월 22일 기준 약 58.2%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영광군, 추계 도로정비 추진... 31개 노선 262km 정비

추석 귀성객·불갑산 상사화축제 관광객 맞이 도로환경 개선 박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및 제25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2025년 추계 도로정비에 나섰다. 이번 도로정비는 위임국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를 포함한 총 31개 노선(262km)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은 9월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주요 정비 내용은 △도로파임(포트홀) 제거 △배수시설 퇴적도 제거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노면정수 및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특히 관광지 주변 주요 간선도로와 시가지 중심도로를 집중 정비하여, 지역의

집을 실시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전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이다"면서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영산강축제', 맛과 즐거움 가득한 미식 여행

음식점 할인, 먹거리 체험, 시식행사까지 풍성한 미식 한마당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음식점 할인, 먹거리 체험, 어린이 맞춤 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미식 이벤트를 마련해 축제의 특별한 즐거움을 더한다.

29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축제 기간에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음식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축제장 내에서 나주 대표 음식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벤트 참여 음식점에서 식사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16개 음식점이 참여했고 참여 업소는 나주시 홈페이지, SNS 또는 음식점 입구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밤상, 남도음식명가, 향토음식 체험문화관의 목사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나주곰탕라면, 홍어, 절구대떡 등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시 및 시식 행사도 열린다. 또한 SNS 인증이나 맛집 저장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무대도 준비해 10월 9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인형극 '꿀고루 왕자와 달 달 마녀'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상연한다. 부대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푸드 케이터링, 행운권 추첨 등을 마련했다.



며 참여는 카카오톡 채널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축제 종료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장기 이벤트를 마련했고 '맛으로 있는 나주, 미식 여행 이벤트'는 축제장에서 배부되는 리플릿을 통해 11월 14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홍어거리 방문 인증이나 나주밤상 지정 업소 이용 후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미션을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나주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다양한 미식 콘텐츠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지역 음식점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생활불편 최소화

광양시, 생활민원기동반·재난상황반 등 6개 반 266명 배치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은 생활민원기동반, 재난상황반, 진료대책반 등 총 6개 반으로 편성되며 266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시는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민원기동반은 환경, 도로, 교통, 수도, 쓰레기 수거, 가로등 등 일상과 직결된 민원을 집중 처리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한다. 재난상황반은 자연재해와 긴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진료대책반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실과 당번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수도 및 안전 관련 민원은 전문업체와 협력해 원활히 처리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일정과 생활민원 관련 정보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한 관리·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9일 오전 10시, 군청 앞 광장과 곡성읍 시가지 일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곡성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원 직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곡성군 새마을회와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 등 지역 환경단체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군청 앞 광장에서 간단한 개회식을 가진 뒤, 부서별 담당 구역으로 나뉘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과 도로변

청결활동을 중심으로 곡성읍 시가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곡성, 살고 싶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를 계기로 생활 속 환경정화 활동을 확산시키고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두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대 사물을 만드느라 기계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념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엔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